

광주시 340억원 골목상권 특례보증 대출

15개 기관·금융권과 협약
3.5% 금리 업체당 2500만원
1년간 2.5% 금리 시서 지원



광주시는 지난 20일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15개 기관·금융권과 '골목상권·전통시장 살리기 특례보증 자금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중 자금지원 제도를 도입해 추진해오고 있다. 지금까지 모두 2만1342명에게 2448억원을 대출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도 1943명에게 300억원을 지원했다.

20억원, 은행 출연금 14억원을 더한 총 34억원이다. 이 재원의 10배인 총 340억원 규모로 특별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은행 출연금 14억원은 광주은행 5억원, KB국민은행 3억원, NH농협은행 2억원, 신한은행 2억원, KEB하나은행 2억원

원이다. 협약에는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광주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시수퍼마켓협동조합, 광주시상인연합회 등 5개 유관 기관 단체장과 광주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한은행, 신협중앙회,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 10개 금융기관이 참여했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2500만원이며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고정금리는 3년 상환일 때 3.5%, 5년은 3.7%이며 변동금리는 3.36%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골목상권 특례보증 제도는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市 민생사법경찰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 단속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는 개혁을 맞아 오는 3월 4일부터 4월 4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학교 주변 등 청소년 일탈이 우려되는 장소를 중점으로 실시해 유해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청소년 유해약물(주류·담배 등) 판매행위 및 판매금지 표시 부착 여부 ▲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 행위 ▲노래연습장, 소주방, 멀티방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및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오후 10시 이후) 준수 여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부착 여부 등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해당 자치구에서 통보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소년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유해환경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지역 대리운전 노조 설립 신고증 교부

광주시는 21일 "광주지역 대리운전기사가들이 결성한 노동조합 설립을 허가하고 지난 18일 신고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광주지부 설립 허가는 광주시가 광주에서 대리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광역시와 도 가운데 대리운전기사 노

동조합 설립이 허가된 곳은 대구, 서울, 부산, 울산에 이어 광주가 다섯 번째다. 시는 노사상생도시 실현과 노동중심 광주 실현을 위해 헌법상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필수적이고, 최근 대법원이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누구나 신청하세요

광주시 연중 195회 진행 시설 ▲문화·예술·스포츠계 희망 단체 ▲학부모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사업이다. 전문강사가 찾아가 무료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연간 195회에 광주 전역에서 진행된다. 각급 학교, 공공기관 등 의무교육대상을 제외한 ▲일반시민(20명 이상) ▲민간기업 ▲사회복지

교육 문의 및 신청은 광주여성재단(670-0537, 1661-6005)으로 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위험요인 점검

3월 31일까지...시·자치구·녹색어머니회 점검단 구성
광주시는 오는 3월 31일까지 5주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156개 초등학교의 교통사고 위험요인을 일제점검한다. 시는 일제점검을 위해 자치구, 녹색어머니회원이 함께 하는 25개반 364명의 점검반을 꾸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차, 교통신호등 정상작동 여부, 통학로 내 불법적치물, 공사현장 위해요소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개혁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사전 점검해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자치구별 교통사고 취약지구(학교)를 발표해 추후 경찰청, 교육청과 함께 취약지구 주변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광역시 중 1위를 차지했으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사랑의 헌혈행사
광주도시공사(사장 노경수)는 지난 20일 빛고을고객센터에서 사랑의 헌혈행사를 가졌다. 도시공사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과 공동으로 매년 2회 이상씩 헌혈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공사 임직원 및 빛고을고객센터 내 입주업체 직원 80여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정보문화산업을 150개사 창업, 일자리 800개 창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울 성과창출계획 보고회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올해 정보·문화산업 일자리 창출과 기업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통해 150개사를 창업하고 신규 일자리 800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특용석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지난 20일 오후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성과창출계획 보고회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정보·문화산업 일자리창출

과 기업성장의 주도적 역할 ▲스토리 기반의 문화도시 향유 콘텐츠 특화 육성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미래사업 기회 창출 ▲광주 정보·문화산업의 에코시스템 구축을 위한 핵심 거점 확대 등이 담긴 성과창출계획서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문화도시 향유 콘텐츠 특화 육성을 위해 웹툰,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음악 등 문화콘텐츠 30건을 제작하고, 자치단체, 유관기관, 대학, 방송사, 관련 기업 등과의 협약을 통해 스토리 기반 산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참가선수, 관광객, 일반시민을 위한 음악페스티벌을 개최하고 ICT체험관과 미디어파사드를 운영하는 등 수영대회와 연계한 콘텐츠 체험, 전시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4차 산업혁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창업단지 구축 및 운영모델 발굴,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창업 등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공지능 중심의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 및 광주 유치를 주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근린상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가도빌딩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사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4층중 2층 201호 전체, 준주거지역
 - 2010년 준공, 주차편리, 전망좋음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좋음
 - 보증금1억에 월400만원 임대가능
 - 감정/시세-11억, 급매8억(대출3억5천만원 포함)
- 2019년 2월 28일까지

문의. 010-6834-7400